

동남아시아 교육과정 신설과 발전을 위한 연대 전략: 성과와 과제에 관한 경험적 분석*

전제성** · 여운경*** · 이한우****

국문초록

이 논문은 지난 10년간 새로 개설된 동남아 관련 전공들의 창설 과정, 운영 방식, 성과 및 과제를 분석한다. 이런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해외지역연구 관련 전공을 새로 개설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가 소개하고 비교 분석하는 사례는 서울대 동남아시아언어문명전공, 서강대 대학원 동남아시아학협동과정, 전북대 동아시아·다문화연계전공이다. 이 세 전공은 동남아 지역연구 전문 교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분야를 연구하는 교원들의 지지와 협력을 통해 창설되었고 개방과 연대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교육과정들은 대학에서 동남아 지역과 언어 관련 교육을 확산시켰고 동남아에 관한 이해를 갖춘 졸업생들을 상당수 배출하였다. 교육과정 심화, 안정성 확보, 전공 학생 및 교원 층원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런 과제의 해결도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주제어: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고등교육, 대학교, 대학원, 언어교육, 교육과정, 한국

* 이 논문은 2022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남아연구소 소장, 주저자, jsjeon@jbnu.ac.kr

***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동남아시아언어문명전공 부교수, 교신저자, wkyeo@snu.ac.kr

**** 전 서강대 동아연구소 및 동남아시아학협동과정 교수, asia@sogang.ac.kr

I. 서론

한국 대학의 동남아시아 관련 교육은 60년이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국어대, 부산외국어대 등 소수의 대학만 전공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지역적으로도 여전히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대, 서강대, 전북대, 단국대, 부경대 등 일부 대학에서 동남아시아 관련 교육과정을 새로 개설하는 데 성공하였다. 우리는 이런 신설 교육과정들이 연구 지역과 학문 분야를 횡단하는 연대의 추구를 통해 창설되었다고 본다.

이 연구는 연대를 통한 교육과정 창설 사례 가운데 서울대 동남아시아언어문명전공, 서강대 대학원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전북대 동아시아·다문화연계전공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¹⁾ 우리가 선택한 사례들은 비교적 최근(2010년대)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도 존속되는 교육과정이라는 점, 우리가 직접 관계한 교육과정이어서 내밀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주관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당면한 과제나 한계도 밝히고 서로 비교하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공동 작업을 통해 우리는 동남아시아 교육과정 신설의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학령인구가 줄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 통폐합이 주문되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동남아시아 교육과정의 신설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전공의 경계를 허물어 융합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선택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지원이 가해지고 있어 연구 분야와 지역을 초월한 연대 전략의 실현 가능

1) 서울대 사례는 여운경, 서강대 사례는 이한우, 전북대 사례는 전제성이 집필하였고, 서론 및 결론은 전제성이 먼저 쓰고 필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정하였다. 전북대 연계전공 사례는 다른 사례와 달리 동아시아 지역 명칭을 사용하지만 그 지역적 범주에 동남아를 주요하게 포함하고 동남아 전공과목 증설과 동남아 언어교육의 확산을 추구하고 있는 전공이다.

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 대학의 동남아시아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는 극소하다. 국제 대학원 모델을 비판하고 대학 밖에서 해법을 찾고자 한 연구(전제성 · 이재현 2008), 동남아시아지역학 전공 창설의 다양한 방안을 시론적으로 모색한 연구(전제성 · 박사명 · 김현경 2021), 온라인 교육방식을 활용하는 베트남 전공 창설 방안 연구(구본석 · 서정목 2019), 언어교육의 초대학적 집중교육 모델을 경험적으로 검토한 연구(김다혜 · 김현경 · 전제성 2023)가 있었을 뿐이다. 동남아시아 연구자들이 대부분 교육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이한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 연구자들이 동남아시아에 관한 교육 발전을 개인적인 노력의 영역으로 간주하며 집단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전문 교원의 부족과 지망생의 희소성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여건이 유사한 미국 동남아학계는 집단적 노력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이를테면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동남아시아프로그램의 기획으로 미국의 학자들이 1999년에 뉴욕에서 두 번의 회동을 통해 동남아 연구와 교육 전반에 관하여 토론했던 기록이 남아있다(Southeast Asia Program 1999). 이 뉴욕 토론은 10년 전에 사회과학연구위원회와 미국아시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위원회(Southeast Asia Council of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가 함께 개최한 위스컨신 토론(Hirschman et al. 1992)의 성과를 이어받은 것이었다. 미국의 동남아시아연구자들은 이런 회합을 통하여 동남아 연구의 경향과 방법뿐만 아니라 학문후속세대 육성과 언어교육 진흥을 위한 상호협력 전략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미국 학자들이 연대하여 창출한 기념비적 성과가 동남아언어여름 학교(SEASSI: Southeast Asian Studies Summer Institute)였고, 이 여

름학교를 통해 집중언어교육을 40년간 중단 없이 수행하였다(정은숙 2023). 저명한 인도네시아 연구자 루쓰 맥베이(Ruth McVey)는 여름학교 모델의 “성공”은 미국의 동남아 학자들이 “경쟁보다 협력”의 이점에 관하여 더 주목하도록 만들었다고 회고하였다(McVey 1998: 54).

우리나라 동남아시아연구자들도 집단적으로 공조하여 다양한 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간 존속시킴으로써 국내 학계에서 독보적인 후속세대 육성모델을 수립했던 경험이 있다(안청시·전제성 2019: 1장), 이런 역사를 참조하고 계승하려는 우리의 시도가 동남아시아 교육과정 관련 연구 진전과 공조 구상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II. 세 가지 사례 분석

1.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사례

(1) 창설

2000년대 후반 서울대 인문대학 내 아시아 교육과정 신설 논의는 당시까지 인문대학의 지역연구 관련 교육 상황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당시 변창구 인문대 학장을 비롯하여 이 계획을 추진한 이들은 서울대 인문대의 어문학과가 중어중문학과를 제외하면 모두 서구 언어 위주로 구성된 점, 아시아 관련 연구 역시 중문과와 동양사학과의 중국 연구 중심으로 구성되어 아시아 다른 지역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서울대에 일본 관련 학과가 부재하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이 새로운 학부 설립에 대한 수요를 부각시켰다. 이런 문제의식이 실현되어

최종적으로 2012년 3월 4개 전공으로 구성된 아시아언어문명학부가 개설되었다.

아시아언어문명학부의 설립 취지는 서울대 인문학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통한 연구의 다양화, 그리고 크게 어문학/사학, 철학 계열로 분과가 나뉘지는 인문대 안에서 어학과 역사/사상 교육은 물론, 현실 사회에 대한 지식을 더해 지역에 대한 종합적 교육을 추구하는 통섭적 인문학의 추구에 있다(구하원 외 2020;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홈페이지). 학부 설립을 위한 초기 논의에서 서울대의 일본학 교육과정 신설에 학내외의 이목이 집중되었지만(한겨레신문 2011/10/14), 논의가 진행되면서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다른 지역들, 특히 그동안 한국의 아시아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지역들을 포괄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안이 부각되었다. 2009년에 공개된 안은 인문대 내에 “지역문화학부(가칭)”를 만들고 그 안에 5개 지역(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중앙아시아, 중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정원을 40-50명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매일경제 2009/12/07). 후속 논의를 통해 2012년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서아시아(중동) 4개 지역 전공으로 구성된 “아시아언어문명학부”가 설립되었고, 2012년 10월 첫 전임교원(일본전공)을 채용했다. 2013년부터 학부 신입생 선발을 시작했는데, 위에 언급된 정원 계획에서 크게 줄어든, 인문대 학과 수시 입학 인원인 10명이 배정되었다.

2014년까지 4명의 학부 전임교원을 채용했으나 이 중 3명이 외국인 교원이었고, 실제 학부 교육과 행정에는 해당 지역을 전공하는 동양사학과(일본, 서아시아), 고고미술사학과(인도) 교원들이 겸임 교원으로 학부 운영과 교육에 참여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2015년에 구하원(인도), 여운경(동남아시아) 교수를 채용하면서 어느 정도 독립적 교육 단위로서의 구성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전공의 경우 2014년까지 전임교원이 없는 상태에서 동양사학과의 코켄웨(Koh Keng We) 교수가 겸임교원으로서 혼자 담당했고, 코켄웨 교수가 싱가포르의 난양기술대로 옮겨간 뒤 2015년부터는 여운경 교수가 전공 운영을 담당했다. 2021년 2학기에 서 지원 교수가 동남아시아전공 전임교원으로 합류하면서 수업 개설, 학생 지도 등의 전공 운영 업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2018년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되었는데, 대학원의 경우 개설 신청 당시 (동남아시아 전공) 전임교원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임시로 4개 전공이 아닌 3개(인도-동남아시아 전공 통합) 전공으로 운영되어 왔다.

(2) 운영

현재 아시아언어문명학부의 수시 입학 정원은 9명이고, 정시를 통해 인문대 단위로 입학한 학생들이 추후 학과를 선택해서 진입하는 경우가 있어 한 해 정원은 대략 12-13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학생들은 2학년이나 3학년 때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데, 전공별로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전공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2015년 이후 동남아시아전공으로 진입하는 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전술한 것처럼 아시아언어문명학부는 언어교육과 더불어 해당 지역의 역사, 사상, 문화 등에 대한 폭넓은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동남아시아전공의 경우 1학년은 아시아 전체 입문 수업과 전공별 탐색 수업, 2학년은 동남아시아의 종교, 대중문화, 역사, 문학 등을 다루는 수업, 3-4학년은 현대 동남아시아 사회와 국가, 디아스포라, 주제별 심화 세미나 등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분과학문의 시각 학습을 권장하기 위해 역사학부, 정치

외교학과, 인류학과 등에서 개설되는 동남아시아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인정하고, 학생들의 수강을 권하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공부한 내용 중 관심 분야의 주제를 심화 발전시켜 졸업논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어학 수업의 경우, 현재 동남아시아 전공에서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수업 4개, 타이어(태국어) 수업 3개를 제공하고 있다. 최소한의 언어 심화학습을 위해서, 동남아시아 전공 학생들은 위의 3개 언어 중 하나를 “주어수언어”로 선택해서 해당 언어 수업을 3개 이상 듣는 것이 필수로 되어 있다.

<표 1>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동남아시아전공 교과과정(학부)*

학년	1학기	2학기
1	아시아문명론입문(학부공동, 전공필수) 동남아시아 문학의 이해	동남아시아 문명의 이해(전공탐색)
2	동남아시아의 종교와 문명 세계사 속의 동남아시아 집중타이어 1	아시아문명교류사(학부공동) 동남아시아 문학 특강 동남아시아의 전통예술과 대중문화 집중타이어 2
3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사회와 문화 동남아시아의 사상과 문명 말레이-인도네시아어 강독 1	아시아문명연구의 시각(학부공동) 동남아시아 디아스포라의 과거와 현재 해양부 동남아시아의 사회와 문화 말레이-인도네시아어 강독 2
4	아시아연구지도(학부공동) 동남아시아 문명 특강 베트남어 강독 1 타이어 강독	동남아시아의 국가와 사회 베트남어 강독 2
교양	말레이-인도네시아어 1 베트남어 1	말레이-인도네시아어 2 베트남어 2

* 2024년 1학기 기준. 이하는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되는 타전공 교과목:
 역사학부: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해상무역, 동남아시아 및 주변의 역사와 기억, 개관베트남사
 인류학과: 동남아문화의 이해
 정치외교학부: 동남아의 정치와 외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서아시아언어문명전공: 이슬람세계 예술의 이해

현재 동남아시아 전공 전임교원은 인도네시아 전공자들(여운경, 근현대사, 서지원, 정치학)로 구성되어 있다. 비언어 교과목의 경우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역과 분과학문 지식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이후 다양한 전공의 강사 인력이 수업을 담당한 바 있다(이상미, 라오스-인류학, 홍문숙, 미얀마-개발학, 최서연, 말레이시아-인류학, 이지은, 태국-영화학). 어학 과목 역시 우수한 강사진(이현정, 베트남어, 강영순/이주영,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이지은, 타이어)이 지속적으로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3) 성과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특히 동남아시아전공의 가장 큰 성과는 어쩌면 설립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등에서 동남아시아 특정 국가/언어를 중심으로 한 학과를 제외하면, 한국에서 “동남아시아”를 전공으로 내세운 학부 교육 단위는 예를 찾기 어렵고, 특히 서울대의 경우 동양사학과, 인류학과 일부 과목을 제외하면 학부 수준에서 동남아시아 관련 지식을 배울 기회를 찾기 어려웠다. 2013년 입학생을 시작으로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 “동남아시아학” 전공으로 졸업한 학생들이 배출되기 시작했고, 현재 까지 복수전공생을 포함해서 50명에 가까운 전공 졸업생을 배출해 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아세안의 경제, 문화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면서 한국의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에서 동남아시아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는데,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졸업생들이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인류학과, 국제학 전공, 법학전문대학원 등 다양한 전공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여러 공/사 기업, 기관에 취업했는데, 특히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의 공기업에 진출한 졸업생들에 따르면 회사에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기대하고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2018년 설립된 대학

원의 경우 1명이 동남아시아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미국 대학의 인류학과 박사과정에 수학중이다.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학계와 사회적 수요의 증가는,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내 동남아시아 전공생 비율의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동남아시아 전공은 2015년에야 전임교원을 채용했고, 2021년에야 다른 전공과 같은 2명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2015년 이후 동남아시아 전공생의 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전공을 선택한 학부생의 거의 절반이 동남아시아 전공생이었다. 신남방정책 등 정부의 동남아 중시 정책의 영향이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관련 지식을 갖춘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표 2>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동남아시아 전공생 수, 2013-2023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공 진입 학부생 수*	4	21	33	41	54	57	54	59	66	58	55
동남아시아 전공생	0	3	9	11	15	16	17	27	30	28	25
동남아시아 전공생 비율	0%	14%	27%	26%	27%	28%	31%	45%	45%	48%	45%

* 2학기 기준. 신입생 및 전공 미진입 학생 제외(이은정 외 2023).

학생 교육과 관련한 성과는 <표 3>의 전공 개설 과목과 수강 인원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신설된 두 과목(대륙부 동남아시아의 사회와 문화, 해양부 동남아시아의 사회와 문화)을 제외하면, 대부분 과목에 평균 10명 이상의 수강생이 있었음을 볼 수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주로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의) 타학과 학생이었다. 특히 매년 개설되는 전공탐색과목 “동남아시아 문명의 이해”를 통해 지금까지 118명의 서울대 학생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접한 것은 인문학 교육의 다변화라는 아시아언어문명학부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 많은 학생들이 가장 흥미 있게 들은 수업으로 “동남아시아 문학의 이해” 혹은 “동남아시아 디아스포라의 과거와 현재”를 꼽았는데, 동남아시아 전체의 문학/역사를 함께 탐구하거나 동남아시아(인)의 이동성을 다루는 이 수업들이 아시아언어문명학부가 추구하는 통섭적 인문학, 열린 인문학적 지역학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표 3> 서울대 동남아시아언어문명전공 교과목 수강 인원, 2013-2023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동남아시아 문명의 이해	10	8	14	6	14	14	10	16	6	13	7	118
동남아시아 문학의 이해	·	·	9	·	11	·	16	·	19	·	7	62
동남아시아의 종교와 문명	·	·	9	12	·	12	·	21	·	10	·	64
동남아시아의 전통예술과 대중문화	·	·	·	15	·	·	21	·	·	·	15	51
동남아시아의 국가와 사회	5	·	·	9	·	15	·	·	8	9	·	46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사회와 문화	·	·	·	·	·	·	·	·	·	·	10	10
해양부 동남아시아의 사회와 문화	·	·	·	·	·	·	·	·	·	9	·	9
동남아시아 디아스포라의 과거와 현재	·	·	6	·	17	·	16	·	6	·	14	59
세계사 속의 동남아시아	·	26	·	·	6	·	·	11	·	8	·	51
동남아시아 문명 특강	3	6	·	9	1	8	·	·	4	6	·	37
동남아시아 문학 특강	·	·	·	5	·	·	·	16	4	·	13	38

보다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성과는 어학 교과목 개설과 수강 인원에서 볼 수 있다.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2023년까지 각각 144명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1” 수업을 수강했고, 62명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강독 2” 수업까지 이수했다(베트남어의 경우 각각 147명, 40

명). 전공생들의 어학 교육은 물론, 다수의 타과생들이 동남아시아의 대표 언어를 접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어학 수업 경험이 동남아시아 어학 커리큘럼 개발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일례로 2023년 “말레이-인도네시아어 강독 1”을 담당한 이주영 교수의 경우 수업에서 학생들과 강독한 내용을 출판물로 내기도 했다(강수연 외 2023).

<표 4> 서울대 동남아시아언어문명전공 어학 과목 수강 인원, 2013-2023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말레이-인도네시아어 1	14	12	14	12	13	18	18	12	7	11	13	144
말레이-인도네시아어 2	6	12	7	10	11	14	10	8	5	5	4	92
말레이-인도네시아어 강독 1	·	·	9	9	7	9	8	9	9	5	7	72
말레이-인도네시아어 강독 2	·	·	5	7	12	7	8	9	5	6	3	62
베트남어 1	9	9	9	11	19	17	21	18	9	13	11	147
베트남어 2	·	7	8	11	16	10	15	14	4	3	6	96
베트남어 강독 1	·	·	3	3	5	11	7	9	7	1	1	48
베트남어 강독 2	·	·	·	3	5	10	4	5	6	2	3	40
집중타이어 1	·	·	4	·	12	·	13	·	5	·	5	40
집중타이어 2	·	·	5	·	7	·	10	·	4	·	3	31
타이어 강독	·	·	·	·	·	4	·	10	·	·	·	14

동남아시아 전공 교원과 학부생의 확보는 해외 연구자 초청 강연 등의 행사를 촉진시키기도 했다. 동남아시아 전공에서는 2015년에는 일본 게이오대학의 오타 아츠시(Ota Atsushi) 교수(인도네시아 경제사), 2016년에는 영국 런던대학의 매튜 코헨(Matthew Cohen) 교수(동남아시아 공연예술) 등 해당 분야 권위자들의 초청 특강을 진행했고, 2024년 2학기에는 미국 코넬대학의 에릭 타글리아코조(Eric Tagliacozzo) 교수(인도네시아/동남아시아 근현대사)를 초청할 계획이다.

(4) 과제

전술한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전공의 지속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그러나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크게 인력/규모의 문제와 교육과정의 문제로 나눌 수 있고, 일부는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전체의 공통 문제, 일부는 동남아시아 전공에 특화된 문제로 볼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 정원의 문제이다. 전술한 것처럼 학부 설립 논의 초반에는 5개 전공에 40-50명의 정원을 배정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4개 전공 10명(이후 9명)이라는 지금의 규모로 결정되었다. 매년 3-4명 정도의 신규 신입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체 12-13명, 지역별로 매년 평균 3명 정도의 전공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공별 수업 구성이 실제로는 독립 학과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의 정원은 안정적인 수업 개설을 어렵게 한다. 특히 복수의 언어 과목을 제공해야 하는 학부/전공 특성상, 다수의 어학 과목들이 수강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문후속세대는 물론 지역전문가로서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고급 수준 어학 수업의 신규 개설도 여의하지 않다.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지만, 학생 정원이 늘어나야 더 다양한 수업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학생 정원과 연동되는 다른 과제는 교수 인력 충원이다. 2021년 서지원 교수가 부임하면서 두 명의 전임교원이 전공 운영과 핵심 수업을 담당하게 되어 상황이 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보다 다양한 내용의 교육 제공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전공 연구자의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학생 정원이 적어 기존 교과목 운영도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신규 교원 정원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과 교원 수를 모두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교육 내용의 면에서 볼 때, “동남아시아 전체에 대한, 포괄적, 학제적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폭넓은 학제적 교육이 가진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특정 주제, 분과학문의 영역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몇몇 졸업생들이 동남아시아전공의 포괄적 커리큘럼에 대한 애정을 보이면서도, (어학, 비어학 과목 모두) 심화학습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특히 학문후속세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관심 분과학문을 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동기 유발과 능력 제고라는 성과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서강대학교 대학원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사례

(1) 창설

서강대학교 대학원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은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사학과 간 협동과정으로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으로 2013년에 개설되었고, 이후 2019년에 박사학위과정을 개설하였다. 그 출범의 기반은 서강대 동아연구소(소장 신윤환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Humanities Korea, 이하 HK사업)을 수행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서강대 동아연구소는 “열린 지역체계로서 동남아: 한국 동남아연구의 세계적 소통과 대중적 확산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2008년 11월부터 10년 간 HK사업을 수행하던 중이었다(한국대학신문 2008/10/27). 이 연구사업은 동남아시아 문명이 동남아 근원 문명에 기반하여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슬람 문명, 유럽 문명 등을 받아들여 열린 체계로 형성된 문명이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 사업은 동남아에 대한 지식의 생산 및 공유와 지역전문가 및 학문후속세대 양

성을 목표로 하여, 연간 본 연구비 7억 5천만 원과 간접비 1억 5천만 원, 총 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HK교수 5명, HK연구교수 5명을 정원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HK사업에 기반하여 출범한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의 교수진은 HK사업에 참여하는 동아연구소 소속 HK교수를 중심으로 하고,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사학과 교수 중 관련 전공 분야 교수로 구성되었다. 신윤환 교수가 동아연구소장을 하고 있었기에 협동과정의 세 개 학과 중 정치외교학과가 형식적으로 주관학과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동아연구소 소속 교수들에 의해 이 협동과정이 운영되었다. 그들의 전공 분야는 역사(2명), 정치(2명), 국제개발협력(1명)이며, 이 가운데 정치학 전공 교수 1명이 퇴임하면서 협동과정 전임 교수는 현재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운영

이 협동과정은 학제적 교육과정으로 문화, 사회, 역사, 정치의 4개 연구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²⁾ 이 과정의 목표는 동남아시아의 문화, 사회, 역사, 정치에 관한 지식을 고양함으로써 이 지역 발전의 흐름을 이해하고 열린 지역으로서의 동남아시아 지역과 세계 각 지역과의 연계성을 탐구함으로써, 인도 태평양 시대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마련하는 것이다. 분야별 교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남아시아 문화 분야는 동남아시아 문화의 다양한 현상과 구성 원리를 심도 있게 파악함과 동시에, 동남아의 시대, 지역, 그리고 주제에 따른 문헌학적 훈련, 유적, 유물을 통한 물질문화의 분석을 통해 동남아의 과거와 현재의 문화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 분야는 동남아의 문화사, 유적과 유물의 이해, 미술사 등의

2) 교육과정에 관한 설명은 서강대학교 대학원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소개 사이트의 내용임. https://seasia.sogang.ac.kr/seasia/seasia01_3.html

주제를 다룬다.

동남아시아 사회 분야는 동남아의 1) 지리적 구성, 2) 경제개발과 발전의 경로, 역동성, 초국가적 및 지역적 원류와 맥락, 3) 이러한 개발과 발전 과정이 낳은 다양한 사회적·생태적 환경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과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분야는 동남아의 경제발전, 글로벌리제이션, 이주, 천연자원 등의 주제를 다룬다.

동남아시아 역사 분야는 시대별·지역별 역사, 사회경제사 및 인구의 이동, 문명사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과거를 연구하여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역사학적 관점을 넘어 지역학으로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한층 깊이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남아시아 정치 분야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정치와 국제 관계에 관련된 제반 현상을 분석하거나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정치 체제, 정치변동 및 종족 등 동남아 정치를 구성하는 핵심사안에 관한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이 분야는 정치 이데올로기 및 운동, 지역분쟁, 지역통합, 종족 문제와 국가 통합 등의 주제를 다룬다.

지난 11년간 이 협동과정이 개설한 대학원 과목은 25종에 달하며 그 과목의 명칭과 수강생 현황은 <표 5>와 같다. 협동과정 단독으로 개설한 과목뿐만 아니라 여타 대학원과 공동으로 개설한 과목들도 있었다. 공동 개설한 과목에서 수강생 수가 더 늘어나는 효과를 보았다. 협동과정의 동남아연구 교원들은 대학원 강의 외에 학부 과목도 주로 교양과정(전인교육원)에 개설하여 강의하였다.

한편, 이 협동과정은 대학원생들에게 동남아 현지조사 지원금을 지급하여 충실한 학위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동아연구소가 10년 기한의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 지원사업에 이어서 6년 기한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을 수주한 덕분에 가능하였다(뉴시스 2019/09/10). 또한 동아연구소는 2011년부터 동남

아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남아시아 언어 공개강좌를 개설하여,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하였는데(동아일보 2011/08/19), 협동과정 학생들에게는 이 언어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5> 서강대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개설 과목 및 수강생, 2013-2023년

과목명	개설 횟수	수강생	
		총 수	평균
지역연구의 이론과 방법*	3	24	8
동남아정치론*	4	33	8.3
동남아시아학총론	3	20	6.7
동남아역사론	6	36	6
동남아근현대사	4	20	5
동남아의 정치변동	2	7	3.5
동남아 미술사	2	6	3
동남아의 종교와 예술	4	33	8.3
동남아문화론	3	12	4
동남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전략	3	20	6.7
동남아 경제사의 이슈들	2	16	8
동남아 이행경제의 개혁과 개방	2	14	7
동남아 경제사회 발전론	2	11	5.5
동남아와 글로벌리제이션	2	10	5
동남아시아 지역주의	6	29	4.8
동남아시아 국제관계	2	14	7
기타 과목 9개(1회 개설)**	9	52	5.8

출처: 서강대학교 웹사이트 개설 교과목 정보. 명칭이 변경된 과목은 최근 명칭으로 표기.

* 정치외교학과와 공동개설하는 경우도 있었음.

** 과목명(수강생 수): 고전기의 동남아(4), 동남아 식민지배사(3), 동남아시아의 크고 작은 역사들(7), 동남아 천연자원 문제와 핵심 이슈(6), 동남아의 종족(5), 동남아의 관광(5), 질적 조사방법론(7), 동남아 내전과 지역분쟁(3), 한국과 동남아(12).

(3) 성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의 석사과정에 총

51명이 입학하였고, 이 가운데 23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 과정에는 총 7명이 입학하였으나 박사학위 취득자는 아직 배출되지 않았다. 석사과정 입학생 가운데 한국인은 42명, 외국인은 9명이었다. 외국인 석사과정생에는 중국인이 6명, 베트남인이 1명, 인도네시아인이 1명, 브루나이인이 1명이었다. 박사과정생 가운데 6명이 한국인, 1명이 베트남인이었다.

<표 6> 서강대학교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입학생 및 졸업생 인원수, 2013-2023년

연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입학생 합계
	한국인 입학생	외국인 입학생	졸업생	한국인 입학생	외국인 입학생	
2013	5					5
2014	5					5
2015	2	2				4
2016	6	3	2			9
2017	3	1	4+1(외)			4
2018	4	1	2+1(외)			5
2019	2	2	2+1(외)	1		4+1(박)
2020	2		1+1(외)	1		2+1(박)
2021	6		3	4		6+4(박)
2022	2		2		1	2+1(박)
2023	5		3			5
합계	42	9	23	6	1	58

출처: 서강대학교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외)는 외국인, (박)은 박사과정.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은 연간 5명 전후인 경우가 많았으나, 연간 2명, 연간 9명인 경우도 있었다. 협동과정 개설 초기에는 한국인 학생들이 입학하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외국인 학생도 입학하였지만, 2020년부터는 다시 한국인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대다수는 전업 학생들이며,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절

반 정도가 전업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2월까지 배출된 23명의 석사학위자의 전공 분야별 수는 역사 11명, 사회 7명, 정치 4명, 문화 1명이었다. 역사 분야 전공자 중 미술사 전공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석사과정 졸업생 중 8명은 현재 국내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3명은 박사과정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졸업생들은 연구소, 박물관, 기업, 정부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박사과정에 진학한 학생들은 해외 유수의 대학원에 4명, 서강대 대학원에 3명, 기타 대학원에 1명 진학하였다. 이는 이 협동과정이 동남아시아 전공 학문후속세대를 배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동남아 관련 학부 강의도 9개(동남아 정치의 이해, 동남아시아 전통사회의 이해, 동남아시아 현대사회의 이해, 영화로 보는 동남아시아, 베트남 사회와 문화,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갈등, 아시아의 미술과 문명, 기업으로 본 아시아 현대사회, 현대 아시아 도시사회의 이해) 개설하여 다수의 학부생들에게 동남아 및 아시아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수강생 수는 연인원 1,525명에 달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수강 인원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서강대 웹사이트 개설 교과목 정보 참조). 뿐만 아니라 동아연구소 소속 교원들은 국제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과목을 강의함으로써 동남아 전문 교육을 학내의 다른 대학원 과정으로 확산시키는 데도 기여하였다.

(4) 과제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하거나 발전시켜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남아시아 지역연구를 주전공으로 하려는 학생 수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감소한 한국 내 일반적 추세와 같은 상황에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도 처

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협동과정은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등 각종 연구사업의 조교로 채용하여 학자금을 보조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둘째, 입학 후 5년 이상 재적하며 졸업하지 않은 학생수가 적지 않다. 이는 대학원 진학의 목적이 학문 탐구에 집중하던 목적으로부터 다양한 목적으로 바뀐 것으로 인한 결과라고 이해된다. 박사학위 과정은 2019년에 시작했기에 아직 박사학위 수여자를 배출하지는 못하였다.

셋째,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이 학과 간 협동과정이지만 동아연구소 전임교수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에 향후 동아연구소 전임교수의 축소에 따른 불안정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관련 학과와 대학은 동남아 연구 전임교수 충원을 포함하여 협동과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넷째, 동아연구소의 HK사업과 이후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이 협동과정 대학원생들에게 재정적 지원의 기반이 되었다. 향후 동아연구소가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 대학원생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약화될 수 있기에, 대학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전북대 동아시아·다문화 융복합 연계전공 사례

(1) 창설

전북대 동아시아·다문화 융복합 연계전공은 올해로 창설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 연계전공은 동남아시아 전문 연구자가 주도하여 지역과 전공을 넘어서는 교원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동남아시아 관련 교육을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하는 학부 전공을 신설한 사례에 해당된다. 이는 전공 측면에서 정치학, 인류학, 사회학, 지리학을 연계

한 것이고, 지역 측면에서 동남아, 일본, 중국을 연결한 것이며, 연구 분야로는 지역학과 이민학을 융합한 것이다. 제시된 목표는 국제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국내적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 진입에 대응하는 교육을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간 학부교육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으로 2010년 6월부터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지원, 일명 에이스(ACE: Advancement for College Education) 사업을 4년간 시행하였다. 전북대도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2015년까지 약 120억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업에서 강조된 교육 가운데 하나가 융복합 교육이었다(한국대학신문 2011/10/19).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전북대는 융복합 교육사업단을 조직하도록 유도한다. 인도네시아 연구자인 정치외교학과의 전제성 교수는 고고문화인류학과, 일본학과, 사회학과 소속 교원을 견인하여 동아시아·다문화교육단을 조직하고 2011년부터 에이스 사업의 지원을 받게 된다.³⁾

에이스 사업 덕분에 동아시아·다문화교육단은 매년 천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전문가 특강과 언어 강좌가 주종인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때 정치외교학과에서 운영하던 인도네시아어 무료 강좌(전북대신문 2010/04/14)에 베트남어 무료 강좌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다가 정부 지원의 성과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융복합교육의 제도화를 요청받는 상황을 활용하여 2014년에 동아시아·다문화 융복합 연계전공(Major of East Asian & Multicultural Studies)의 창설이 성사된다. 주관학과는 정치외교학과, 참여학과는 고고문화인류학과와 일본학과로 하여 전공 개설을 신청하였다. 과목 추가 개설도 허용되어 동남아 강좌가 7개로

3) 교육단 창단 교원은 정치외교학과의 전제성 교수와 박동천 교수(정치사상), 고고문화인류학과의 이정덕 교수(다문화연구)와 채수홍 교수(베트남연구), 일본학과의 임경택 교수(일본문화연구), 사회학과의 설동훈 교수(이주연구) 등 4개 학과 소속 6명이었다.

늘게 된다. 특히 동남아 관련 교과목이 정치외교학과, 인류학과, 사학과에 개설되었다는 의의가 크다. 이 세 학문은 흔히 해외지역연구의 ‘트로이카’로 불리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이민정책포럼이라는 비교적 큰 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전공의 탄생을 학내와 지역사회에 알렸다. 전북대는 2015년에 ACE사업에 재선정되어 연간 16억3천8백만 원을 4년 동안 더 지원받게 되었고(아주경제 2015/07/06), 동아시아·다문화 융복합 연계전공에 대한 지원도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즈음 전북대는 교육부가 새로 제시한 창조한국(CK: Creative Korea) 사업의 국제화 부문에 선정되었다. 정치외교학과가 국제학부와 경제학부와 함께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을 목표로 내걸고 신청하여 연간 10억의 자금을 2014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업단은 동아시아·다문화 연계전공의 경험과 성과를 반영하였고, 동남아 언어강의와 동남아지역 단기 조사, 현지어 연수, 자원봉사 활동 등을 수행하였기에(전북대학교 교내공지 2017/09/22; 전북대 국제개발협력 창의인재양성사업단 페이스북 페이지) 동아시아·다문화 연계전공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

(2) 운영

연계전공은 운영위원회를 결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주임교수는 동남아정치연구자 전제성 교수가 수임하기로 하고, 코로나 19 대유행 이전에는 매학기 회의를 소집하였다. 운영위원을 적극적으로 초대하여 현재는 11인의 교원이 운영위원으로서 전공에 참여하고 있다. 정치외교학과에서 3인, 고고문화인류학과에서 3인, 사회학과 1인, 국제학부 1인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수주 덕분에 고용한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 3인도 운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운영위원 가운데 동남아연구자는 6명이
고 학문 분야는 정치학(2명), 인류학(3명), 노사관계학(1명)에 분포한
다.⁴⁾

교육조교가 배정되고 홈페이지도 마련한다. 기성 전공이 아닌 연
계전공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도 개설하였고 전
공생 모집기간에는 홍보 카드도 인쇄하여 돌렸다. 이런 운영비는 에
이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주관학과인 정치외교학과 사무실에 연
계전공 현판도 내걸었고 학과조교는 연계전공 교과 및 학생 관리의
부담을 추가로 짴어졌다.

학교 규정에 따라 전공필수과목 포함하여 42학점 이상 이수하면
복수전공 졸업이 가능하고 21학점 이상이면 부전공을 이수한 것으
로 인정된다. 학내의 관련 교과목을 전수 조사하고 평판도 들어 전공
과목을 엄선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매년 조금씩 수정하였다. 그
결과가 <표 7>에 제시된 교육과정표이다.

전공필수는 [동아시아·다문화의 이해] 한 과목이고, 운영위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팀티칭 방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그 주요 내용은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하여”(전제성), “민족주의 성찰”(박동천), “이
민정책과 다문화정책”(설동훈), “다문화주의”(전의령), “동아시아
해양안보”(박성용), “동아시아 노사관계 특성”(박진영), “중국과 이
웃 관계”(권재범), “현대 일본 신화의 형성과 붕괴”(임경택), “3대 기

4) 현재 전공운영위원은 다음과 같다. 전제성(정치학, 인도네시아연구), 박성용(정치학, 동아시아 해양안보연구), 권재범(정치학, 중국과 국제관계연구), 이진영(정치학, 아세안연구), 임경택(인류학, 일본연구), 전의령(인류학, 다문화연구), 이경목(인류학, 인도네시아연구), 김희숙(인류학, 미얀마연구), 김주영(인류학, 싱가포르연구), 박진영(노사관계학, 캄보디아·미얀마연구). 10년 사이에 합류했다 떠난 운영위원들도 있다. 베트남연구 인류학자 채수홍 교수, 중국연구 지리학자 이강원 교수, 일본연구 인류학자 박지환 교수가 서울대로 이적하였고, 이정덕 교수와 박동천 교수는 정년퇴임으로 운영위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유민지(동티모르연구 정치학자, 현재 이화여대), 김정현(난민연구 정치학자, 현재 충남대) 박사도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을 사직하면서 운영위원도 그만두게 되었다.

적의 나라 인도네시아”(전제성), “자카르타 오토바이의 두꺼운 삶”(이경묵), “다문화 국가 싱가포르의 명암”(김주영), “군부 대 시민의 미안마”(김희숙), “바다 없는 라오스의 변신”(김다혜), “아세안의 역사와 운영체계”(이진영) 등이다.

<표 7> 전북대 동아시아·다문화 융복합 연계전공 교육과정표

학년	학기	과목명	개설학과
2	2	동아시아·다문화의 이해*	정치외교학과
		다문화사회론	사회학과
		문화와 권력	고고문화인류학과
3	1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사학과
		동남아시아정치론	정치외교학과
		동부및동남아시아지역지리	지리교육과
		동아시아문명의 발생과 전개	고고문화인류학과
		동아시아의 삶과 문화	고고문화인류학과
		이민정책론	사회학과
		중국정치와 외교	정치외교학과
	2	현대일본사회의 이해	일본학과
		동남아의 민족과 문화	고고문화인류학과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사학과
		러시아의 정치와 외교	정치외교학과
		북한정치론	정치외교학과
		일본사회와 동아시아	일본학과
		동아시아와 아세안	정치외교학과
4	1	동북아국제관계론	정치외교학과
		중국현대정치사	사학과
		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국제인문사회학부
	2	민족주의특강	정치외교학과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학과
		일본경제사	일본학과
		현대중국인물론	중어중문과
		해외지역연구연습	정치외교학과

* 전공필수과목. 모든 과목은 3학점. 2024년 3월 기준.

연계전공에서 비교과로 운영하던 무료 언어 강좌는 에이스 사업에 이어 2019년 2월에 창조한국 사업도 종료되자 존폐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때 구상된 것이 2019년 여름 “부산외대와 함께하는 전북대 동남아언어여름캠프”였다. 동남아언어여름캠프 창설을 위한 협약에서 부산외대 특수외국어사업단의 파트너는 바로 전북대 동아시아·다문화 연계전공이었다(국제신문 2019/02/28).

(3) 성과

동아시아·다문화 연계전공은 출범 후 10년간 58명의 졸업생(복수전공생 및 부전공생)을 배출하였다. 졸업생들은 수가 많지 않지만 다양한 전공에 원적을 둔 학생들이었다. 연계전공생들의 소속 전공은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고고문화인류학과, 일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프랑스학과, 스페인중남미학과, 사학과, 인문사회국제학부, 경영학부, 무역학과, 농생물학과 등 15개 전공을 넘어섰다.

<표 8> 전북대 동아시아·다문화 연계전공 신청 및 졸업 학생 수, 2014-2023년

전공학생수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신청	9	7	16	15	6	8	8	9	11	7	96
졸업*	-	-	4	15	12	6	8	8	5	0	58

* 복수전공 졸업생 수(28인)와 부전공 졸업생 수(30인) 합계.

연계전공 덕분에 동남아 관련 강좌가 다섯 과목 신설되었고 기존 과목 두 과목에 더해 총 일곱 과목이 설강되었다. 그러다 두 과목이 없어져 다섯 과목이 잔존한다. 정치외교학과의 [인도네시아의 언어와 정치] 과목은 전북대 동남아언어캠프의 시작으로 필요성이 줄어들고 대학 본부의 전공과목 축소 요구에 부응하여 폐기하였고, 고고문화인류학과의 [동남아인의 삶과 문화]는 학과 소속 동남아 전문가의 이적으로 인해 과목명이 바뀌고 동남아 관련 내용이 빠지게 되었

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북대에서 개설된 동남아 관련 과목을 통하여 지난 10년간 연인원 1,486명의 전북대 학생들에게 동남아시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9> 동남아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수강 인원, 2014-2023년

과목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동아시아·다문화의이해*	15	11	18	19	32	22	48	60	51	46	322
동남아시아정치론	25	-	22	40	45	47	46	58	-	-	283
동아시아와아세안	11	21	11	-	15	17	47	-	-	36	158
인도네시아의언어와정치	25	14	20	27	20	16	-	-	-	-	122
동남아인의삶과문화**	25	12	-	-	-	-	-	-	-	-	37
베트남의언어와문화***	28	9	14	-	38	38	16	7	28	20	198
동남아시아의역사와문화	40	40	40	38	40	38	35	37	24	34	366
계	169	107	125	124	190	178	192	162	103	136	1,486

* 동아시아·다문화 연계전공 필수과목으로 동남아 관련 교육이 1/3 이상인 과목.
 ** 과목명이 2016년에 [동아시아의 삶과 문화]로 변경됨. 이후 동남아 내용 탈각. 수강생 수 기록 중단.
 *** 과목명이 2018년부터 [동남아의 언어와 문화]로, 다시 2020년에 [동남아의 민족과 문화]로 변경됨.

동남아 관련 과목들은 점차 상당한 규모의 수강생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되었다는 성과도 있다. [동남아시아정치론] 수강생이 20여명에서 40여명으로 증가하고, 자매과목인 [동아시아와 아세안]의 수강생도 10명대에서 3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무엇보다 전공필수과목인 [동아시아·다문화의 이해] 수강생이 10여명에서 4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는 성과가 중요하다. 전공필수과목은 매년 개설해야 하고, 그러려면 최소 수강생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래서 전공 창설 초기에 운영위원들의 걱정이 컸다. 대책으로 저녁 7시에 시작하여 다른 과목들과 시간 중복을 피하고 전문가 특강 방식으로 개설하여 수강생들을 유인하고자 했다.

이 전공은 동남아 언어교육도 비교과 과정으로 추진하여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를 5년간 연인원 276명에게 교육한 성과를 달성

한 바 있다. 수강생들은 사회과학대(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심리학과 등), 상대(경영학부, 경제학부, 무역학과), 사범대(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등), 공대(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고분자나노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화학과 등), 농대(농생물학과 등), 인문대(스페인중남미학과, 철학과 등), 자연대(수학과 등) 소속 33개 학과 학생들이었다. 이런 비교과 동남아 언어 교육 경험과 성과는 부산외대가 함께하는 전북대 동남아 언어 캠프 창설로 이어지는 바탕이 되었다(김다혜·김현경·전제성 2023).

<표 10> 전북대 동남아 언어 무료강좌 수강생 수, 2014-2018년

강좌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인도네시아어	10	15	20	16	31	92
베트남어	16	11	61	40	56	184
계	26	26	81	56	87	276

(4) 과제

당면 과제로서 전공 신입생이 줄고 있는 문제가 우선 제기되어야 한다. 연간 전공 신청자 수에 관한 <표 8>을 보면 전공 신입생이 2017년에 열다섯으로 극점을 찍은 뒤에 줄어들어 2023년에는 일곱에 불과했다. 2024년 3월 현재 여섯 학과(학부) 소속 14명의 학생이 연계전공생으로 등록 중이다. 그래서 대학 본부로부터 전공 폐쇄 경고 공문을 받게 되었다. 대학 본부는 연계전공 관련 자체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2년 연속 전공 신청 학생이 없거나 3년간 계속적으로 재적 전공생이 30명 미만인 연계전공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년 전공 신청생이 있었기에 첫 번째 조건에서는 벗어나지만, 두 번째 조건에는 해당된다. 연계전공의 유지를 원한다면 주임교수가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북대 총장이 교무처를 통하여 2022년에 처음 내려보냈는데(전북대학교총장 2022/09/26), 2023년

에도 또 내려보냈다.

이 문제는 연계전공에 대한 대학의 태도 변화와 이에 따른 지원 부재의 상황을 거론하게 만든다. 학생 유치와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전공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에이스 사업과 창조한국 사업 같은 교육부의 학부 교육 경쟁 유도 사업들이 종료된 이후라 특별한 쓸모가 없어 보이는 연계전공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관리 통제만 강화하려는 본부의 태도 변화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전공주임교수는 사유서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구를 첨언하였다.

“본 연계전공이 학생들의 선택성 증대와 교육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교원들의 봉사로 존속되고 있음을 살펴 연계전공 존재 기준 하향하고(예: 15명), 연계전공을 지원하고(예: TA 배정),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도(예: 학교 홈페이지 게시, 학교 편람 수록 등)를 찾아 주시길 본부에 호소함.”(전제성 2023).

연계전공 내부의 문제는 좀 더 긴 설명이 필요하다. 창설 교수진의 타고 이적과 은퇴는 전공 교육의 포괄성을 약화시켰다. 이강원 교수의 서울대 이적은 상당한 기간 동안 중국 관련 교육 전략의 공백을 낳았다. 채수홍 교수의 서울대 이적은 한국형 동남아 교육의 ‘양 날개’(인도네시아연구와 베트남연구) 가운데 하나를 잃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타격이 컸을 뿐만 아니라 인류학 교과에서 동남아 강좌의 쇠락도 유발했다. 임경택 교수가 일본학과에서 고고문화인류학과로 이적하자 일본학과는 연계전공 탈퇴를 결정했다.

이런 문제가 우연적인 것이었다면 연계전공의 본원적 한계도 느껴진다. 연계전공은 학내 개설된 과목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지역학과 이민학 및 다문화주의 관련 과목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고 관련성이 높은 신설 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려는 노력이 투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을 추구하더라도 교육과정

의 상당한 부분이 개별적 과목들의 기계적 조합이라는 비판은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계전공 필수과목의 팀티칭 내용 역시 그런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운영위원들이 교육 행정 단위가 아니라 교육 연구 단위로서 소통성과 연대성을 강화해야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역연구자가 흔히 듣는 학제간 연구가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처럼(Anderson 2016: 5장).

아울러 재학생들에게 전공의 존재와 강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유치 노력도 필요하다. 전공생들의 소속감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각 학과에서 매년 파악하는 졸업생 진로 정보도 연계전공에서 별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계전공은 교원과 학생의 소속이 안정적인 일반 전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이 교원들의 자원봉사조직인 연계전공 운영위원회가 온전히 감당하긴 쉽지 않다. 그러나 연계전공 주임교수가 채용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연계전공 주임교수를 따로 채용한다면 최선이겠으나, 그럴 수 없다면 주관학과 신입교원 채용 시에 연계전공주임도 겸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채용하는 차선책도 고려할 만하다. 이런 교원 한 사람으로부터 연계전공의 본원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비교 분석과 실천적 함의

본론에서 살펴본 신설 교육과정들은 10여 년간 동남아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서울대 동남아시아언어문명전공은 동남아 관련 지식과 언어를 습득하고 졸업논문까지 작성한 학사를 50명 가까이 배출하였다. 서강대 대학원 동남아

시아학 협동과정은 58명의 석박사과정생을 교육하고 동남아지역연구 석사를 23명 배출하였다. 전북대 동아시아·다문화연계전공은 동남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지역과 다문화주의 관련 교육을 받은 58명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각 전공은 소속 학생들을 잘 가르쳐 사회에 진출시키는 데 일차적 기능을 설정한다. 그렇지만 교육과정의 존재 가치는 소수의 전공생 육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소개한 세 전공은 전공생을 넘어 대학 전체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는 데 기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동남아 교과목을 신설 증설하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에게 동남아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교과, 비교과, 공개강좌 등 여러 경로로 동남아 언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전공의 존재는 교육 확산 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동남아 관련 새로운 교육과정의 창설은 대학의 의지에 따라 하향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가 하면 기존 학과나 연구소의 소속 교원들이 주도하여 상향식으로 성사된 경우도 있다. 하향식 창설 사례에서는 교육 혁신을 추구하고 고등교육의 소임을 다하려는 서울대, 특히 인문대학의 노력이 돋보였다(아시아엔 2012/02/28). 이런 경우 학부 전공의 유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 반면에 상향식 창설은 교원들의 추가적인 노력이 많이 투여되고 그런 노력에 외부 기금의 확보도 포함된다. 대학 당국이 동남아 관련 교육을 강화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거나 교육 혁신의 레퍼토리에 포함시키는 창의성을 지니지 못할 때, 외부 기금의 동원이 대학의 동기부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강대 사례는 연구소 수주 연구비를 교육지원금으로 활용한 경우였고, 전북대 사례는 학과가 획득한 교육사업비를 활용한 경우였다. 상향식 교육과정 창설과 발전은 어떤 지원사업이든 기회로 삼으려는 목적의식적 기획과 노력을 요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교육과정이 연대를 통해 창설되고 존속되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대의 경우 아시아의 다른 지역학 분야 교원들과 학부를 함께 형성함으로써, 서강대의 경우 연구소가 정치학, 사회학, 사학 교원들과 협동함으로써, 전북대의 경우 동남아 연구 교원들이 일본연구, 중국연구, 이주 및 다문화연구 교원들과 연대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신설되고 운영될 수 있었다. 특히 전북대와 같은 국립대에서 연계전공의 존속과 운영은 학과를 넘어서는 교원들의 연대와 지지가 결정적인 기반이다. 학내 여러 전공에 분산된 동남아 연구 교원들끼리의 결속을 다지는 일도 필수적이다.

신설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직면한 과제들은 전공 명칭이 명확한 독립형과 그렇지 않은 혼합형인 경우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명시적인 동남아 전공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다른 전공과 섞인 혼합형은 융합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를 느낀다. 전북대의 경우 여기저기서 수집한 과목들을 통해 동아시아공동체나 다문화주의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느냐의 의문을 외부 자문회의에서 접한 바 있다. 기계적인 조립이 아니라 융합적이어야 한다는 주문은 교원들의 자원봉사식 전공운영위원회로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반면에 동남아를 명시한 교육과정들은 충분히 포괄적이면서도 심화학습이 가능한 동남아 전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동남아의 다양성과 지역학의 학제성에 준하여 포괄성을 추구하되 국가별 분야별 전문화 과정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 관한 주기적인 교원 협의를 통해 전략적인 보완을 계속 추진하지만, 전공 교원의 부족은 교육과정을 발전시키는 데 근본적인 제한을 가한다. 동남아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지역학의 학제성을 구현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교원이 필요하다. 전공의 전임교원이 두 명뿐인 서울대의 경우 교원 충원이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소수의 전공생 상황도 문제이다. 서울대의 경우 전공 신입생이 증

가 추세이나 학부 전체 정원은 대학이 정한 한계 내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정원이 제한적인 학부 전공은 복수전공생과 부전공생 유치를 통해 전공생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 과정 이어서 정원의 제한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서강대 협동과정은 진학설명회를 학생 모집 때마다 개최하고 있는데, 다른 전공이나 대학 학생들의 수강을 유도하기 위한 과목별 홍보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존재가 걸려 있어 홍보가 필사적인 전북대 연계전공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공 소식을 전하고 전공 입문과목에 융합성과 전략성을 강화함으로써 학부생의 전공 진입 동기를 부여하려 애쓰고 있다.

연대에서 시작한 전공이니 연대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의 경우 다른 전공의 과목들을 동남아 전공의 선택 과목으로 인정하는 개방적 전략이 돋보인다. 연계전공은 아니지만 연계전공 방식을 취하는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다. 거꾸로 동남아 전공의 과목도 다른 전공의 선택과목으로 인정되는 교차인정 방식이라면 타학과 학생들의 동남아 전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것이다. 서강대 협동과정 교원들의 타대학원 출강은 대학원간 호혜협력의 토대를 쌓고 전공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는 효과를 낼 것이다. 전북대 같은 불안정한 연계전공은 신진 교원들을 초대하고 새로 개설된 과목들을 교육과정에 편성시키면 더 큰 활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을 진술하고 비교분석한 바가 동남아 관련 고등교육의 확산을 모색하거나 후원하려는 이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들이 직면한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관련 교육과정의 신설과 존속은 우리가 취했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연구 지역과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교원 연대를 통하여 학부를 설립하거나 연계전공이나 대학원 협동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창설 이후 존속을 위한 과제 - 교육과정의

심화 발전, 교육 자금 동원, 학생 및 교원 확보 등 - 의 해법도 개방과 연대를 통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협력이 경쟁적인 대학의 경계를 넘어설 수도 있다. 최근 정부는 초대학적 고등교육 협력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시작했다(대한민국 교육부 2023/06/30). 그러나 주체가 크고 액수도 크다. 동남아 교육을 위한 대학간 협력은 주제와 규모 면에서 정부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극소수 대학컨소시엄에 몰아주는 현행 방식보다는 미시적 교육 협력에 대한 소액 지원 방식이 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방식이어야 동남아 교육 관련 초대학적 협력사업도 참여할 여지를 갖게 된다. 다른 한편에서 민간재단도 동남아 교육을 지원하기 시작했다(이를테면, 현대차정몽구재단 2024/03/04). 반가운 일이지만, 학생 장학 프로그램 수준을 넘어 기금교수 지원처럼 대학에 교원을 제공하는 단계로 격상되면 더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연구가 주목하였듯이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창설하고 존속시키는 주인공은 바로 교원이기 때문이다. 우리 학회의 교육 진흥 역할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 미국 사회과학위원회 동남아프로그램과 아시아학회 동남아연구위원회가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 진흥과 관련된 일련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듯이 한국동남아학회도 교육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남아 교육의 심화와 확산을 위한 숙의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수연 · 김주영 · 안혜영 · 이동원 · 이주영 · 이채경 · 차윤서 · 홍민지. 2023. 『인도네시아어 독해와 청해 1』. 서울: 북퍼브.
- 구본석 · 서정목. 2019. “융복합 전공으로서 베트남어 및 지역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41(5): 995-1020.
- 구하원 외. 2020. “아시아언어문명학부의 현황과 발전방안.” 2020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 국제신문. 2019/02/28. “부산외국어대, 전북대와 특수외국어 관련 학술교류 협정 체결.”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228.99099009667> (검색일: 2024.03.13.)
- 김다혜 · 김현경 · 전제성. 2023. “방학 캠프 방식의 동남아시아 언어 교육 실험: 성과와 과제.” 『동남아시아연구』 33(2): 31-73.
- 뉴스시스. 2019/09/10. “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에 서강대 동아연구소 등 74 곳 선정.”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90909_0000766081(검색일: 2024.04.15.)
- 대한민국 교육부. 2023/06/30. “미래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인문사회 융합 인재 양성한다.” <https://if-blog.tistory.com/14301>(검색일: 2024.05.18.)
- 동아일보. 2011/08/19. “서강대 동아연구소 ‘열린 동남아학교’ 언어 강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10819/39653706/1>(검색일: 2024.04.14.)
- 매일경제. 2009/12/07. “아시아 전문가 양성 서울대 학부 만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2192227?sid=102>(검색일 2024.3.31.)
- 아시아엔. 2012/02/28. “서울대 중동·동남아 전문가 양성한다.”

- <http://kor.theasian.asia/archives/17940>(검색일: 2024.04.10.)
아주경제. 2015/07/06. “전북대, ‘잘 가르치는 대학’ 위상 재확인.”
<https://www.ajunews.com/view/20150706191910380>
- 안청시 · 전제성 편. “한국에서 동남아학계의 형성과 발전.”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역사, 현황 및 분석』. 제 1장.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연합뉴스. 2017/10/06. “서울대 석사과정에도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생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9589299?sid=102>(검색일: 2024.4.1.)
- 이은정 · 구하원 · 여운경 · 서지원 · 오윤정. 2023.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발전방안 2.0 수립 결과보고서.”
- 전북대신문. 2010/04/14. “‘슬라맛 빠기’ Selamat Pagi 인도네시아어 배워요.” <https://www.jbpresscenter.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7>(검색일: 2024.03.13.)
- 전북대학교 교내공지. 2017/09/22. “CK국제화사업단 동남아 언어학 습반 수강모집안내.” <https://www.jbnu.ac.kr/kor/menuID=139&mode=view&no=33788>(검색일: 2024.03.12.)
- 전북대학교총장. 2022. “연계전공·융합전공 운영 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 9월 26일자 교내 공문.
- 전제성. 2023. “동아시아·다문화 융복합 연계전공 운영 유지에 관한 사유서.” 10월 10일자 교내 공문.
- 전제성 · 박사명 · 김현경. 2021. “한국 대학의 동남아시아 관련 교육 과정: 현황과 대안.” 『동아연구』 40(1): 1-32.
- 전제성 · 이재현. 2008. “한국의 동남아학 교육과정과 지역연구자 육성모델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8(2): 255-297.
- 정은숙. 2023. “미국의 동남아언어여름학교(SEASSI): 성사, 성과 및 함의.” 전동연 이슈페이퍼 24. <https://jiseas.jbnu.ac.kr/jiseas/>

14497/

- 하채균. 2018. “한-아세안 협력의 ‘약한 고리’: 한국의 동남아시아 교육.” 한아세안센터 아세안토크 2018-07.
- 한겨레신문. 2011/10/14. “서울대 개교 뒤 첫 ‘일본전공’ 개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114219?sid=102>(검색일 2024.4.1.)
- 한국대학신문. 2008/10/27. “인문한국사업, 연구소 10곳 신규 선정.”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439>(검색일: 2024.04.01.)
- 한국대학신문. 2011/10/19. “전북대, 학부교육 선진화 본격 착수.”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2596>(검색일: 2024.03.12.)
- 현대차정몽구재단. 2024/03/04. “2024 CMK 아세안 스쿨 제2기 참가자 모집 공고.” <https://hyundai-cmkfoundation.org/m/board/notice/detail?bbSeq=1532>(검색일: 2024.05.20.)

Anderson, Benedict. 2016. *A Life Beyond Boundaries*. London & New York: Verso.

Hirschman, Charles, Charles F. Keyes, and Karl Hutterer. 1992. *Southeast Asian Studies in the Balance: Reflections from America*. Ann Arbor, Michigan: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McVey, Ruth. 1998. “Globalization, Marginalization, and the Study of Southeast Asia.” Craig J. Reynolds and Ruth McVey. *Southeast Asian Studies: Reorientations*. The Frank H. Golay Memorial Lectures 2 and 3. Ithaca: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Southeast Asia Program,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99.
Weighing the Balance. Southeast Asian Studies Ten Years After. New York: Southeast Asia Program Publications.

웹페이지

서강대학교 대학원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홈페이지.

https://seasia.sogang.ac.kr/seasia/seasia01_3.html(검색일: 2024.04.01.)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홈페이지. <https://asia.snu.ac.kr/>(검색일: 2024.3.31.)

전북대학교 CK-1 국제개발협력 창의인재양성사업단 페이스북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jbnuck>(검색일: 2024.03.12.)

전북대학교 동아시아·다문화 융·복합 연계전공 홈페이지.

<https://wz3.jbnu.ac.kr/sites/eams/index.do>(검색일: 2024.03.10.)

전북대학교 동아시아·다문화 융·복합 연계전공 페이스북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measjbnu/>(검색일: 2024.03.13.)

(2024.04.22. 투고, 2024.04.24. 심사, 2024.05.09. 게재확정)

<Abstract>

Cooperative Strategies to Establish a New
Higher Education Program on Southeast Asia:
An Empirical Analysis of Achievements and
Future Tasks in Korea

Je Seong JE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oonkyung YEO
(Seoul National University)

Han Woo LEE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establishment process, operation method, performance, and tasks of newly opened Southeast Asia-related majors over the past 10 years. Through this empirical analysis, we hope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ose who wish to open a new major related to area studies. The cases we introduce and compare are the South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Maj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raduate Program in Southeast Asian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and the East Asian and Multicultural Studies Major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ese three majors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were created through support and cooperation of faculty specializing in Southeast Asian area studies as well as faculty teaching on other regions or fields, and are operated in a manner of openness and

solidarity. Thanks to the cooperative strategies, these courses provided education on the region and language of Southeast Asia at universities where education on Southeast Asia was scarce, and produced many graduates with an understanding of Southeast Asia. Although they are facing many challenges such as deepening curriculum, securing stability, and recruiting major students and faculty, it is expected that such challenges can be solved through cooperation and solidarity as has been the case so far.

Key Words: Southeast Asian studies, area studies, higher education, university, graduate course, language teaching program, Korea